구자철 “K리그 전성기 기량 찾았다”

그가 말하는 獨무대 상승세의 힘

아우크스부르크 임대후 2골·2AS

간결한 패스 플레이 나랑 잘 맞아
K리그 휘저을때 처럼 경기력 굿!



구자철이 맹활약을 펼치며 소속팀 아우크스부르크의 새로운 에이스로 떠오르고 있다. 구자철은 자신감을 회복하면서 경기력이 한층 향상됐다. 스포츠동아DB

유럽파의 침묵이 계속되는 요즘 독일 분데스리가 구자철(23·아우크스부르크)만이 유일하게 제 몫을 해주고 있다. 올 초 볼프스부르크에서 아우크스부르크로 임대된 것이 기회가 됐다. 지난 주말 베르더 브레멘전(1-1 무)에선 도움 한 개를 추가, 올 시즌 2골 2도움으로 맹위를 떨치고 있다. 구자철과 26일 늦은 밤 전화통화를 했다.

-요즘 페이스가 좋다.

“계속 몸을 끌어올리고 있다. 체력이나 경기력이 좋아진다는 걸 느낀다. 특히 브레멘전은 독일 진출 이후 가장 기억에 남을 만한 플레이를 했다고 느꼈다.”

-그동안 플레이가 마음에 안 들었나?

“독일에서 1년 간 머물면서 사실 내가 하고 싶은 축구를 한 번도 해본 기억이 없다. 그런데 브레멘전은 K리그 시절, 제주에서 ‘잘했다’고 느낀 경기력을 똑같이 발휘했던 것 같다. 훨씬 긍정적이었다.”

-볼프스부르크 때와 지금은 많은 차이가 있다.

“볼프스부르크에서 전혀 출전을 못한 건 아니었다. 동료들이 많았음에도 마가트 감독이 꾸준히 기회를 부여했다. 다만 원하는 게 서로 조금씩 달랐다. 난 변화와 도전이 필요했다. 때마침 아우크스부르크와 인연이 닿았고, 마다할 까닭이 없었다.”

-그래도 임대 신분은 쉽지 않을 텐데.

“맞다. 임대 생활은 책임감이나 부담감이 예전보다 큰 건 사실이다. 새로운 환경과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컸다. 붙잡아준 건 초심이었다. 제주에서 안정적으로 뛰는 대신, 독일에 오는 걸 내가 직접 선택했다. 아우크스부르크도 마찬가지다. 더욱 나은 활약을 펼치겠다고 마음먹었다. 주변에서도 관심을 가져주고, 도움도 많이 받는다. 동료들, 코치들이 믿어준다. 자신감을 찾았다.”

-포지션 변경에 혼란을 겪지는 않나.

“브레멘전에서 붙박이 섀도 스트라이커로 나선 건 아니었다. 일본 동료 하지메 호소가이가 수비형 미드필더로 섰고, 난 중앙 요원으로 나섰다. 중앙이 (볼프스부르크에서 맡은) 측면에 비해 훨씬 편안한 건 맞다. 아우크스부르크의 요스 루후카이 감독도 이를 잘 알고 있다. 측면 경험이 적다는 걸 안다. 볼프스부르크 시절이 큰 도움이 됐다. 실수를 하며 많이 배웠다.”

-루후카이 감독이 어떤 걸 강조하는지.

“간결한 축구다. 브레멘전을 앞두고 감독께서 얘기해준 건 ‘사이드로 옮기는 빈도를 줄이고, 중앙에서 최대한 간결하고 확실한 볼 배급’이었다. 움직임도 간결하고, 짧게 풀어나가라고 했다. 쉽게 축구를 하고 있다.”

-쉴 때는 주로 뭘 하는지.

“집에서 그냥 푹 자고 논다. 휴식을 잘해야 운동에 지장이 없다. 주로 집에 머무는데 오늘은 밖에 나가 산책을 했다. 쇼핑도 하고, 동료들과 외식도 한다. 생활 리듬이 익숙해졌다.”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트위터 @yoshike3

시작 10분·종료 10분 전 광주FC의 ‘스페셜 골타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요즘 광주FC가 그렇다. 유력한 강등 후보로 꼽힌 광주는 무패 행진 속에 3승1무(승점 10)를 기록, 승점 동률의 FC서울에 골 득실에 밀린 2위를 마크 중이다.

광주 축구가 특히 매력적인 건 끝까지 결과를 알 수 없다는 데 있다. 주심의 종료 휘슬이 울리는 순간까지는 누구도 최종 스코어를 예측하기 어렵다. 졌다고 판단된 경기를 뒤집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광주 프런트는 늘 “우린 마지막까지 가봐야 알 수 있다”며 자신만만해 한다. 축구계에는 통상 ‘경기 시작 5분, 종료 5분전을 주의하라’는 격언이 있다. 광주는 좀 더 범위를 넓혀 10분이 가장 어울린다.

올 시즌 광주는 상주와 시즌 개막전(1-0 승) 때 터진 결승골은 후반 40분 주앙 파울로가 기록했다. 포항과 2라운드 홈 개막전(1-1 무)에서는 불과 킥오프 30초 만에 주장 김은선이 터뜨렸다. 제주와 3라운드(3-2 승)에선 전반 2분 김동섭이 선제골로 포문을 연 뒤 1-2로 뒤지던 후반 42분과 추가시간에 주앙 파울로와 슈바가 연속 골을 작렬했다. 부산과 주말 대결(2-1 승)에선 전반 9분 임선영이 득점하며 기세를 올렸다.

작년 시즌 광주의 정규리그 득점(32골) 분포를 보면 킥오프 10분 이내 득점은 4골이었고, 종료 10분 전 득점은 8골에 달했다. 그 중 추가시간 골은 2골이고 ‘종료 5분 전’으로 폭을 줄여도 무려 6골이 터졌다. 소위 시작 끝 발과 막판 끝 발이 가장 뛰어났다.

고무적인 건 주말 부산전 결승 골 시점이다. 주앙 파울로가 찍은 후반 20분 득점은 작년에 한 번도 광주가 골을 넣지 못한 시간이었다. 전반이든, 후반이든 광주는 20분 대 골은 전혀 없었으니 새로운 기록을 추가한 셈이다.

광주 최만희 감독은 “꼴찌 후보가 올라가는 건 어렵지만 추락하는 건 순식간에 벌어진다. 선수들에게 고른 집중력을 주문한다. 지고 있어도, 비기고 있어도 무의식중에 선수들은 ‘최소한 패하진 않는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크게 내세울 점은 없어도 자신감만큼은 어디서도 밀리지 않는다”며 밝게 웃었다. 남장현 기자

편집 | 민성기 기자 min3654@donga.com 트위터@b612min

Talk Talk 사커 유쾌한 뒷담화

강원사장, 사재 털어 밀린 급여 지급

●…강원FC는 3월 중순 하이원 리조트와 연간 100억원에 달하는 스폰서 계약을 체결해 재정이 열악한 다른 도시민 구단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그러나 아직 후원금이 구단으로 입금되지 않아 선수단 및 직원 급여 지급에 애를 먹었습니다. 해결사는 남종현 강원 사장이었는데요. 남 사장은 사재를 털어 월급을 지급했습니다. 남 사장은 이전부터 사비를 털어 구단 운영 자금을 마련하거나 이벤트 경품을 직접 마련하는 등 남다른 애정을 쏟고 있습니다. 남 사장의 강원 사랑이 엄청납니다.

부진 전북 “회식으로 분위기 바꾸자”

●…최근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전북 현대의 A선수가 회식의 필요성을 제기해 눈길을 끌었답니다. 구단 관계자에 따르면 A선수는 “훈련보다도 회식을 통해서 선수들이 허심탄회하게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부분을 더 준비해야하는지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답니다. 전북은 아직 선수단 회식을 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지난해와 같은 경기력을 되찾기 위해 필요하다면 회식 뿐 아니라 어떤 방법이라도 동원 해야겠죠.

“나보다는 팀”…전남의 위대한 승리

●…스포츠에서 ‘선수’보다 위대한 게 있다면 바로 ‘팀’이죠. K리그에서 이를 가장 잘 지켜가고 있는 구단이 있다면 전남을 꼽고 싶네요. 주말 4라운드에서 전남은 경남을 꺾고 시즌 첫 승을 따냈죠. 비결이요? 바로 팀 정신이었어요. 선수들 대부분이 고만고만 이름값이 높지 않은데다 스타는 찾기조차 어렵죠. 대신 절박함이 있었답니다. 정해성 감독은 항상 “선수가 아닌, 팀으로 이기자”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는데요. 제대로 ‘약발’이 먹혀든 모양이네요.

싸이 공연 길어져 3분 늦게 후반전 킥오프

●…FC서울과 전북 현대의 경기가 벌어진 25일 서울월드컵경기장. 가수 싸이가 하프타임 무대를 장식했습니다. 공연의 황제답게 다양한 퍼포먼스로 2만5000명 관중의 열렬한 환호를 받았죠. 축구장에서 보기 드문 멋진 공연이었습니다. 옥에 티가 있었다면 시간이었죠. 규정 상 하프타임은 15분을 넘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싸이 공연이 길어지는 바람에 후반전 시작이 3분 늦어져 서울, 프로연맹 관계자는 발만 동동 굴러야 했습니다. 축구팀

카타르 레퀴야 남태희, 프로데뷔 첫 우승



카타르에서 뛰고 있는 남태희(21·레퀴야 SC·사진)가 2009년 프로 데뷔 이후 첫 우승을 달성했다. 레퀴야는 26일(한국시간) 열린 알 아라비와 20라운드 경기에서 1-1 무승부를 기록하며 승점 1점(42)을 추가, 리그 2경기가 남은 현재 2위 알 자이쉬(35)를 승점 7점차로 따돌리고 우승을 확정지었다. 남태희는 지난 해 12월 이적한 이후 리그 5골을 기록하며 팀 내 득점 2위를 기록하고 있다.

